



##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 - 7252



# Contents

이슈 포커스	기초연금제도 시행 내용과 시사점 고령자빈곤 동향 분석과 함의	01
노후 재무설계	제조회사 부장 C씨, 실물자산 조정을 통한 금융자산 확대 운용 필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 추구형 전략이 유효 투자상품은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도록 구성 6월 주식시장은 단기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09
국내외 단신	퇴직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신감 반등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국민연금은 노동시장과 연계해 근로유인 높일 필요	14
상품브리프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은퇴설계 서비스	18
행복한 노후디자인	은퇴한 5060세대, 이젠 '알바' 세대로!	20
하나 뉴스	하나은행, 하나N Bank 사용자를 위한 이벤트 실시 등	22
연금 통계		23



## 기초연금제도 시행 내용과 시사점



수석연구원 강미정  
(ashleykang@hanafn.com)

“그 동안 논란이 지속되어 온 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7월 이후 시행될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하위 소득 70% 노인 중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30만원 이하 대상자는 누구나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과 더불어 근로노인을 위한 혜택은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초연금 재원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의 형평성 문제 등도 여전히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 지

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도 노인 빈곤 및 연금 사각지대 발생 문제가 지적되면서 기초연금 등의 노인 소득보장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노령연금의 제도상 한계 등이 드러나면서 2012년 대선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이 결정되었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과정에서 대상자 범위 및 국민연금 기간 연계 등의 문제점으로 난항을 지속하였으나 대립하던 여야가 절충안 합의에 도달하면서 마침내 5월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불가피하지만 자원 조달 및 제도 지속성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내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7월부터 하위 소득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절충안은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후세대 부담은 경감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도입 이후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 혜택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국민연금 제도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저소득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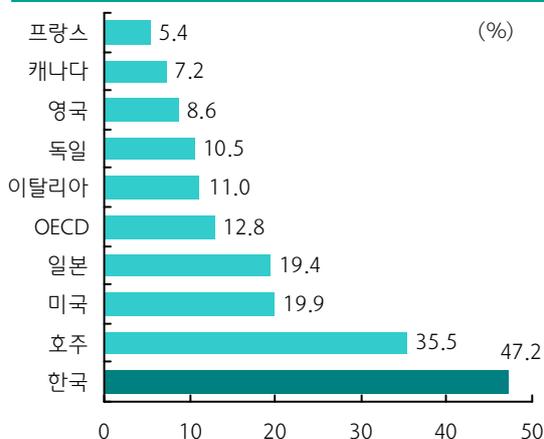
다는 문제점을 보완해 장기 가입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의 연계는 유지하고 있다. 기초연금 재원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은 활용하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7월 이후 65세 이상의 하위 소득 70% 노인 중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대상자는 누구나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0만원의 기준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 등을 감안하였다. 국민연금액이 30~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30~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감소하더라도 총 연금액을 50만원으로 맞춰주는 것이다.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2014년 7월 기준 전체 65세 노인 639만 명 중 약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의 정부안보다 12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연금 급여가 인상되고 대상자도 확대할 계획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기존의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 2010년 노인 소득 빈곤율



주 :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자료 :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 2013

### 소득인정액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노인을 위한 혜택은 확대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2013년 기준 노인 단독 87만원, 노인 부부 139만 2천 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및 고시한다. 특히 이번 기초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사치성 재산 보유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하는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이 반영되었다.

먼저 월 소득평가액<sup>1)</sup>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 재산, 무료 임차소득 등 매달 벌어들이는 각종 소득에 월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산하면 된다. 다만 자산없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들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를 강화함에 따라 근로소득 중 1인당 월 48만원 공제에서 하반기 이후 30%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반면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료 임차소득을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자녀 명의의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산정 방식(시가 표준액\* 0.78%)에 따라 소득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 기초연금 당초 정부안과 절충안 비교

국민연금 수령액	가입기간 15년 (2013년까지 가입 기준)	
	당초 정부안	절충안
30만원	16만원 (총 46만원)	20만원 (총 50만원)
33만원	16만원 (총 49만원)	17만원 (총 50만원)
37만원	16만원 (총 53만원)	16만원 (총 53만원)
40만원	16만원 (총 56만원)	16만원 (총 5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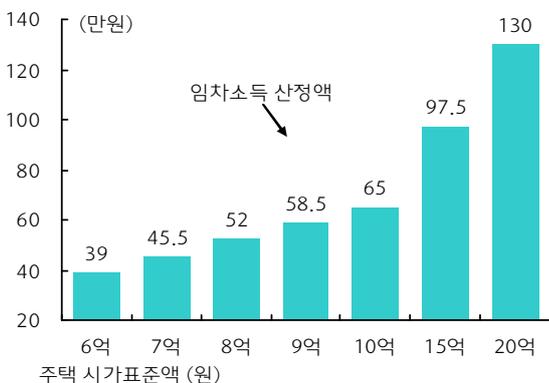
주 : 보건복지부  
 1)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48만원) + 기타소득}

월 소득평가액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야 한다.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sup>2)</sup>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재산(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등)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을 공제한다. 그리고 금융재산을 더하면 되는데 금융재산은 추가로 2천 만원이 공제되며 부채 또한 전액 차감된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에 소득환산율 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알 수 있다. 이외에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배기량 3천 CC 이상)와 골프, 콘도 등 고가회원권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 재산 또한 재산 소진시까지 재산으로 추가적으로 산정된다.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며 기준연금액(20만원)은 소비자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될 예정이다.

#### 소득산정액 기준 강화에 따른 임차소득



주 : 보건복지부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 × 연 소득환산율(5%)/12개월]+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3)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조정된 금액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식은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 금액<sup>3)</sup>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뺀 후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면 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연계노령연금 등이 2개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의 A급여(국민연금 내 기초연금 성격의 급여 부분)를 더한 금액을 감액하여 계산하며 기초연금 대상 노인 중 국민연금 유족 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들은 A급여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대상자 이외의 노인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되어 10~20만원 사이의 금액을 차등 지급받게 되는데 오는 7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의 경우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며 이후 가입 기간이 1년씩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이 1만원씩 감소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들은 10만원의 최소 기초연금액을 수급 받는다.

원칙적으로 일시금 수급자를 포함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장애 및 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가 일시금 수령 5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였다.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는 신청이 필요한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 재정 부담 가중 및 미래세대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상존

기초연금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 먼저 기초연금 재원을 전액 세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재정 부담을 축소하고는 있지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건복지

부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1년간 지급하게 될 재정 소요액을 10.3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228.83조원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세금 납입자들의 소비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 문제 또한 논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 차등 지급으로 미래세대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는 이유로 연금액이 차감 지급되면서 미래세대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현 노인층과 미래세대 노인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 저소득 노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

스웨덴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보장연금 제도로 전환하였다. 경제 불황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정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

서 선별적인 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특히 경제 성장 둔화와 평균 수명 연장에도 연금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를 위해 공공노인시설 등을 확충하였다. 연금 개혁으로 스웨덴은 2012년 만 65세 인구가 3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2007년 사이 연금보험 지출이 전체 GDP 대비 6.8% 감소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도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특히 기초연금이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정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은닉 등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 문제 등을 최소화해 나가야겠다. 동시에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연금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동시에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소요재정

(단위 : 억 원)

구분	2015~2017			2040	2060
	2015	2016	2017		
당초 정부안	102,501	108,608	114,422	998,640	2,279,754
절충안	103,307	109,495	115,449	1,000,266	2,288,279
정부안 대비	806	887	1,027	1,926	8,525

| 주 : 보건복지부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 추이



| 주 : 통계청

“

## 고령자 빈곤 동향 분석과 함의

”

연구위원 김 대 익  
(kimdi@hanafn.com)

“국내 고령자들은 빠른 고령화의 진행에 비해 노후 준비부족, 사회안전망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고령자 빈곤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소득 불평등 수준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 결과 노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은퇴 후에도 늦게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고령자들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에는 고용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고령자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층을 세분화한 접근 전략이 요구된다.”



## 인구 고령화 진행으로 노후 빈곤문제가 관심사로 부상

**우** 리나라 인구구성이 기대수명 증가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점유하는 비율이 12.2%에 이르며 고령사회에 다다르고 있다. 또한 고령화지수<sup>1)</sup>는 2000년 34.3에서 2013년에 83.3까지 높아졌고, 2017년에는 104.1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빠른 인구구성의 변화 진행은 고령자들을 은퇴 후 오랜 기간동안 생활하기 위한 소득확보의 문제에 노출시키고 있다.

국내 고령자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노후 준비부족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인 빈곤화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기초노령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노인 빈곤화의 급속한 진행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2012년 48.4%로 높은 수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처분소득 중위 50%미만 기준 47.2%(2010년 기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평균 노인빈곤율 12.8%보다 3.7배정도 높은 수준이다. OECD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평균 이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1개 국가이다. 그리고 20%이상인 국가는 호주(35.5%), 멕시코(27.6%) 등 5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인구 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은 2007년

1)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를 의미

3.01배 이던 것이 2010년에는 3.11배로 차이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OECD회원국 중 전체인구의 빈곤율과 노인빈곤율간에 차이가 가장 큰 나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 가계금융 및 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 연령층가구(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가처분소득기준 2011년 51.1%이던 것이 2012년에는 50.2%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 기준으로는 0인 경우와 1인 이상인 경우 각각 2012년에 75.1%, 32.3%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빈곤율에서는 노인연령층의 빈곤율이 2012년 기준 48.4%로 전년대비(49.3%) 소폭 개선되었지만 높은 수준이다. 세부 연령별로는 50~59세가 13.1%, 60~69세가 28.3%, 70세 이상은 53.9%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빈곤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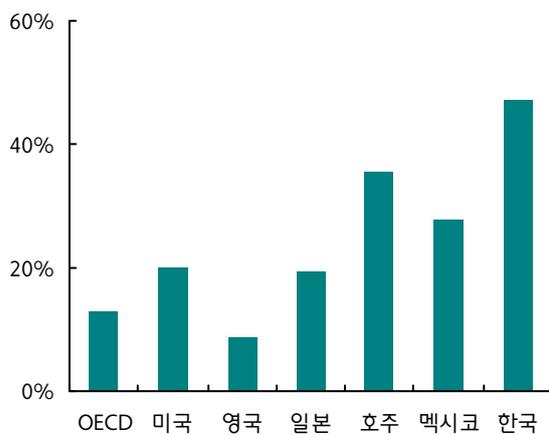
그 결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2008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입 당시 289.7만명 이던 대상자가 2012년에는 393.3만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전년동기대비로는 3%증가한 수준이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분포는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비중이 38.8%에 이르고, 전체의 61.2%는 소득인정액이 20만원 이하로 대부분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2012년 일반수급자 기준으로 130만명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노인연령층이 전체의 28.9%를 점유하고 있다. 노인 총인구 대비 수급자는 6.3%의 수준을 보이며 연령대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 현상도 우려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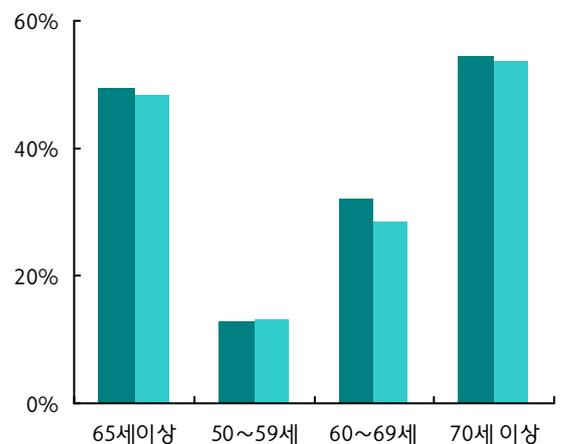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고령자들의 빈곤율 상승뿐만 아니라 소득의 불평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연령대별 소득 수준을 보면 2013년 기준 60세 이상의 평균 소득은 2,166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59.4%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12년 2,007만원으로 전체평균이 57.7%에 비하여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연령대별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 OECD 주요국 노인 빈곤율



| 주 : 2010년 65세 이상 기준, 가계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 기준  
자료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2013

#### 은퇴 연령대별 빈곤율



| 주 : 가처분 소득 및 2012년 기준  
자료 : 통계청,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니계수는 2012년 0.433으로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근로연령가구 0.28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도 노인들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전소득을 고려하기 전인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노인들의 소득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소득 기준 2013년 노인들의 지니계수는 0.531의 수준인 반면 근로연령 인구의 지니계수는 0.309로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소득불평등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의 소득 불평등 추세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노인들의 2010년 지니계수는 0.411이던 것이 2013년에는 0.433으로 추세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근로연령대의 지니계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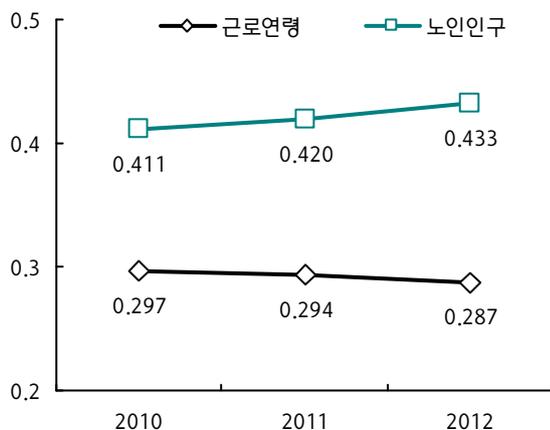
한편 소득 분위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득 편차도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2년 3분위 노인가구 평균 소득기준 각 소득 분위별 노인가구의 소득비율은 1분위가 19.3%, 2분위는 59.0%, 4분위는 144.2%, 5분위는 309.9%로 저소

총 노인가구와 고소득층 노인가구간에 소득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소득분위별 전체 평균소득 대비 노인가구의 소득비율도 1분위가 83.5%인 반면 5분위는 104.5%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소득수준 분석도 노인가구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에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평균 대비 노인가구의 소득비율은 2011년 1분위와 5분위가 각각 85.2%, 95.2%이던 것이 2012년에는 83.5%, 104.5%로 1분위는 낮아지고, 5분위는 높아지면서 소득불평등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노인가구의 소득 구간별 분포를 보면 노인전체가구의 60.6%가 1,000만원 미만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고령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은퇴 후 늦게까지 경제활동 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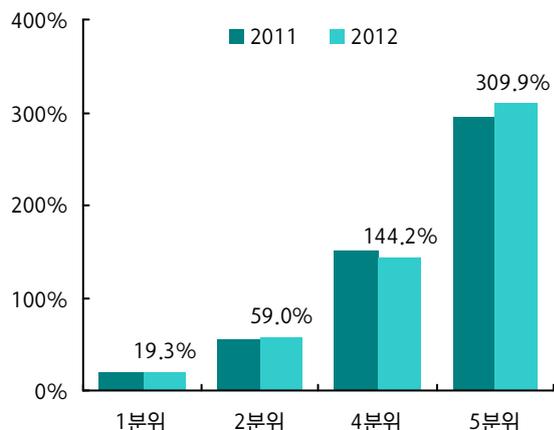
고령자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고령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

#### 근로연령 및 노령인구의 지니계수 추이



주 : 가처분 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 노인가구의 소득 분위별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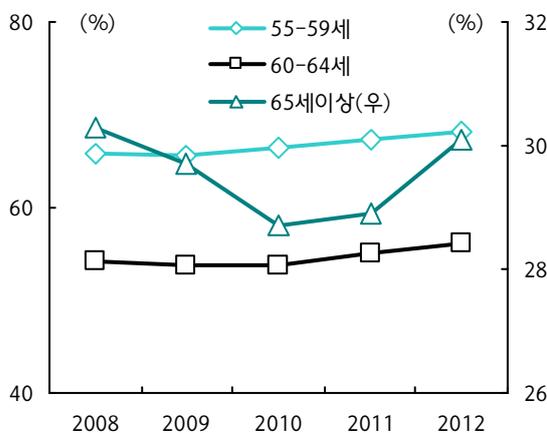


주 : 3분위 평균소득 기준 각 분위별 소득비율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로 나타났다. ‘2013년 사회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고령자들의 38.6%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1년 조사(40.6%)때 보다는 조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고령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 고령자들의 30.8%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을 생각해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고령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퇴 후에도 늦게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 근로소득이고, OECD 국가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식적인 은퇴나이에 비하여 실제적인 은퇴나이가 멕시코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의 경우 실제적인 은퇴나이는 공식적인 은퇴나이 60세에 비하여 11.1세가 많은 71.1세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국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및 고용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은 2012년 각각 30.7%, 30.1%로 2010년 각각 29.4%, 28.7%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0

고령자 고용률 동향



자료 : 통계청, 각 연도별 고령자 통계

~64세의 경우는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이 2012년 각각 57.8%, 56.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제혜택의 강화 등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솔루션 모색이 최선

고령자들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층을 세분화하여 각 그룹별로 접근 전략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고령자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적합직종을 확대하고, 준강제화하여 보다 활성화 시키고, 고용촉진 장려금도 고령자 고용의 경우 기업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계층에게는 기초노령연금과 더불어 의료지원 등 현물지원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대상 선정에 있어서 노인들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소득 등이 낮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한 운영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인 빈곤의 근본적인 해결 측면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 국내의 경우 빠른 고령화의 진행이 추산되기 때문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연금제도의 정비 및 활성화를 통한 해결이 요구된다. 그 중 개인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혜택의 강화, 저소득층의 직접지원 병행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적극적인 세제지원 등을 통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 재정지출을 줄여 오히려 건강한 재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정책당국은 인식하고 사적연금의 활성화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제조회사 부장 C씨, 실물자산 조정을 통한 금융자산 확대 운용 필요

제조회사에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C씨(50세)는 60세에 은퇴하고 85세까지 생존하며, 은퇴 후 매월 약 300만원의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할 때 C씨가 10년 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매월 약 384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월 1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은 25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으며, 퇴직 후 매월 25만원씩 수령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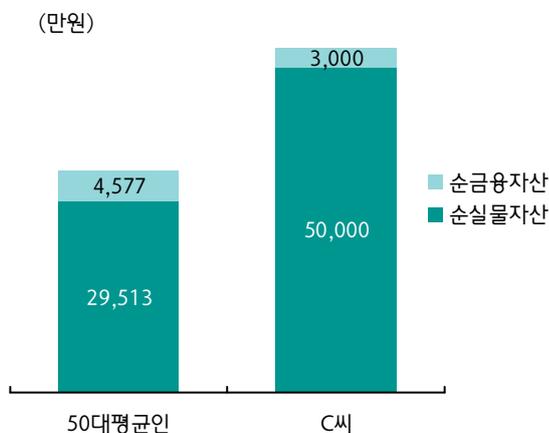
한편 C씨는 현재 5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실물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순금융자산은 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C씨는 실물자산이 50대 평균인 대비 다소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조정 후 실물자산은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60대에 실물자산 보유 규모를 3억원 대로 조정할 예정이며, 60세에 종신 정액형

을 가입할 경우 현재 기준 1억원 당 약 2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C씨는 조정된 순실물자산을 통해 매월 68.5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필요 생활비에서 차감하면 은퇴 후 월 부족자금은 165.5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85세까지 필요한 월 부족자금 총액의 현재가치를 합산하면 약 3억 6,388만원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금융자산 3천만원과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2억원을 합산하여 운용할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약 4.69%의 수익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안정추구형 전략의 목표 수익률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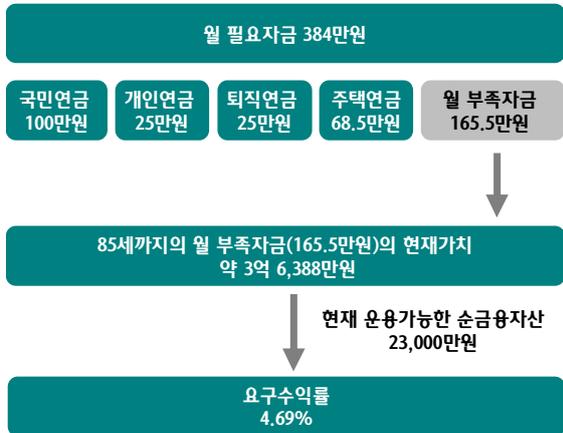
C씨는 50대 평균에 비해 실물자산은 많으나, 순금융자산은 다소 적은 편이다. 따라서 순금융자산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정 시 운용자산에 여유가 생기므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이루어질 경우 원활한 노후 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50대 평균인과 C씨의 재무상태 비교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C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전략이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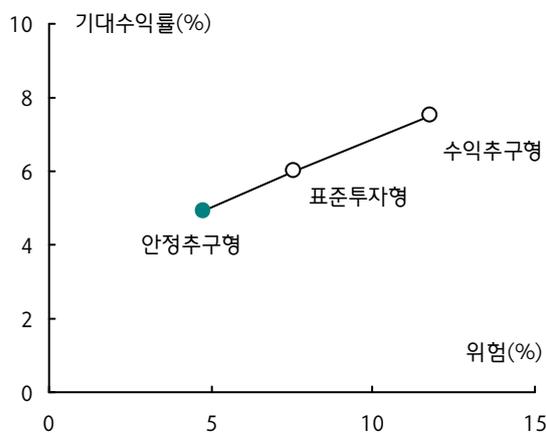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수익추구형, 표준투자형, 안정추구형 등으로 분류된다. C씨가 현 상태로 노후 준비를 유지해나갈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수익률은 4.69%로 계산되었는데, 앞선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C씨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6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투자비중은 국내주식 10.0%, 국내채권 22.5%, 해외채권 5.0%, 대안형자산 35.0%, 현금성자산 27.5%로 설정하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투자 유형인 안정추구형은 채권 및 대안형자산의 비중을 높게 유지한다. 또한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해외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지만, 예·적금보다는 높은 수익추구를 위해 국내주식에 일부 투자한다. 현금비중은 유동성확보 차원 및 변동성 관리를 위해 현금비중은 다소 높게 가져간다.

안정추구형 전략은 국내외 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국내의 경우 사상 최저 예금 금리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채권 주변에 머무르고 있으며,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가 금리 하락을 견인하고 있어 당분간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의 경우도 풍부한 유동성이 주요국 금리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며, 하이일드 채권의 상대적 우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 주식의 경우는 상반기 박스권, 하반기에는 레벨업 전망이 유효하나 중국 금융시장 불안 재발 가능성, 국내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등으로 인해 단기 소강 국면 진입이 예상된다.

한편 여전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변동성 장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롱숏전략을 활용하는 중위험형 상품 및 ELS와 같은 구조화 상품 등의 대안형 투자 및 현금성자산 비중 또한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자료 : 하나대투증권

###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국내주식	10.0	13.0(+1.0)	27.5(+2.5)
선진국주식	-	9.5(-1.0)	22.5(-5.0)
이머징주식	-	5.0	15.0(+2.5)
국내채권	22.5	12.5	5.0
해외채권	5.0	10.0	7.5
대안형	35.0	35.0	19.5
현금성	27.5	15.0	3.0

자료 : 하나대투증권

## 투자상품은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도록 구성

6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는 전월과 동일하게 채권 등 안정형 자산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해외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포트폴리오의 5.0%를 투자하는 국내주식은 유명 투자자문사들의 자문 내용을 랩자산 운용에 활용하는 하나자문형랩(Style I-F:기본), 단기 증시 흐름보다 기업의 장기 가치에 주목하여 투자하는 신영마라톤(주식) A 등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22.5%를 투자하는 국내 채권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내 공공물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잠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고채(13-04), 주식형 펀드보다는 위험이 적고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단기금리 상승 예상 시 매력적인 FC 정기예금형 신탁 등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5.0%를 투자하는 해외 채권은 금리 및

크레딧 국면에 따라 고수익이 기대되는 다양한 채권 및 미국 시니어론 등에 분산 투자하는 하나UBS글로벌 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 A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35.0%를 투자하는 대안형의 경우 자산 중 10.0%를 투자하는 중위험형 상품은 국내주식을 중심으로 롱숏전략, 공모주/이벤트 활용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유리트리플알파(주식혼합) A에 투자한다. 10.0%를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배분전략을 사용하는 한국밸류10년투자1(채권혼합) C에 투자하며, 15.0%를 투자하는 구조화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양방향 원금보장형 ELS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UBS 신종MMF(S-26호) C에 27.5%를 투자한다. 한편 C씨는 연금저축보험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고 있다.

###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구분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자문사	비중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국내주식	성장형	하나자문형랩(Style I-F:장기성장)	대신	5.0%
		가치(배당형)	신영마라톤(주식) A	신영	5.0%
	채권	국내	물가연동국고채(13-04)	-	10.0%
			FC 정기예금형 신탁	하나대투	12.5%
		해외	하나UBS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 A	하나UBS	5.0%
	대안형	중위험형	유리트리플알파(주식혼합) A	유리	10.0%
		혼합형	한국밸류10년투자1(채권혼합) C	한국밸류	10.0%
		구조화	양방향 원금보장형	하나대투	15.0%
	현금성	-	하나UBS 신종 MMF(S-26호) C	하나UBS	27.5%
	합계				100.0%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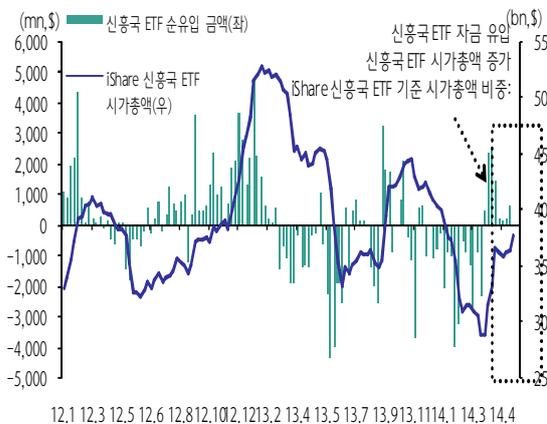
주 :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안정추구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위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 6월 주식시장은 단기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긴장감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한파 이후 지표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다소 약세를 보였다. 신흥국의 경우 인도, 인도네시아 등 선거가 치러진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5월 국내 시장은 2개월 연속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급 개선을 기반으로 대형주가 상승하여 KOSPI가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를 보였다.

6월 국내 주식시장은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나 중국 금융시장 불안 재발 가능성, 미국 물가상승 압력 점증, 국내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등 단기 조정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어 당분간 소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하반기 상승장 전망이 예상되는 만큼 조정 시 지속적인 비중 확대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 신흥국 ETF 자금 순유입 및 시가총액 추이



자료 : 하나대투증권

### 금리 상승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그동안 박스권 등락을 보이던 금리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자 외국인의 채권 현물과 장기 선물 매수로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했다. 또한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한은 총재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에도 ECB 추가 완화 기대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에 동조했다. 따라서 각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스탠스 변화나 투자, 대출 등 자금수요 발생 전까지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우크라이나 우려가 지속되며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ECB의 추가 완화 기대로 선진국 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인도 등 선거가 끝난 신흥국들은 안정적인 금융시장의 모습을 보이는 등 변동성 요인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자금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하이일드채권의 상대적 우위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크레딧 스프레드 및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



주 : 장단기스프레드 : 국고채 10년-국고채 3년  
크레딧스프레드 : 회사채AA 3년 - 국고채 3년  
자료 : 민평 3사, 하나대투증권

### 해외시장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미국은 최근 상승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은 부담이나, 주택판매가 상승 반전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안정적인 물가와 고용 회복 등으로 소비경기 회복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은 선진유로그룹의 경기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유럽 일부 국가들의 경기도 정상화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ECB의 추가 부양 기대감이 형성되며 유로화의 강세 흐름이 제한되는 점도 유로존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 여파가 가시화되며 소매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된다. BOJ의 추가 부양책도 제한되며 엔저 속도도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제조업 경기가 소폭이나마 개선세를 보이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다소 경감시켰다. 다만 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버블 논란 등으로 경기 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는

선거 이후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며, 자산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투자 유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외자본 유입세가 이어지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6%대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브라질은 월드컵 이벤트 기간임을 감안할 때 소비부문의 개선이 예상된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지고 있고 월드컵 이벤트 이후, 투자부문이 둔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리츠시장은 견고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최근 금리하락의 영향으로 주거와 헬스케어를 포함한 미국 리츠지수의 상승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5월 후반 들어 피로감에 의한 가격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견조한 펀더멘탈로 인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으며, 추세반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아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면 향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 인도 선거 전후 금융시장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주요 금리 및 리츠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퇴직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신감 반등 ”

“ 은퇴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을 수록 퇴직에 대한 자신감 증가 ”

미국의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EBRI)가 실시한 2014 Retirement Confidence Survey에 따르면, 근로자와 은퇴자들의 퇴직에 대한 자신감은 과거 5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올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설문은 25세 이상 근로자 및 퇴직자 1,501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18%의 근로자가 퇴직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작년 대비 5%p 상승한 것으로 2007년 전고점인 27%에는 못미쳤지만 최근 5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반등했다는 데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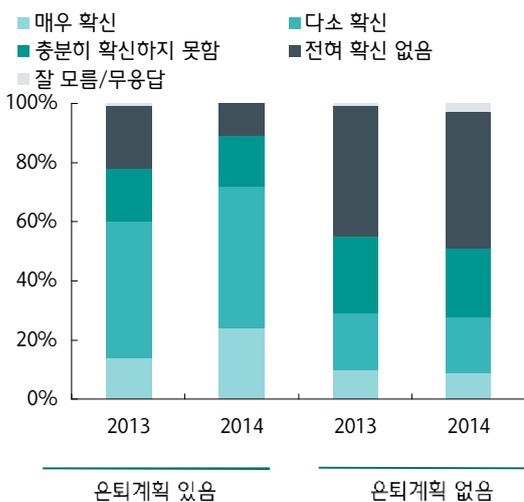
미가 있다.

퇴직에 대한 자신감은 특히 가계 소득이 높은 응답자 뿐만 아니라 IRA 등의 개인퇴직계좌를 포함하여 은퇴 계획이 되어 있는 응답자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은퇴 계획이 없는 응답자들(전체 응답자의 10%)은 약 절반 이상이 퇴직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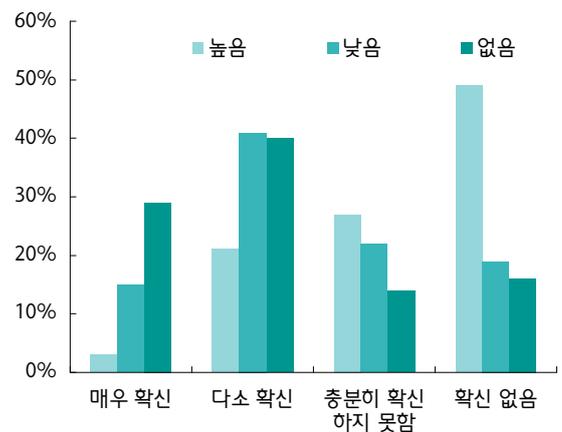
부채 수준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58%, 은퇴자의 44%가 부채 부담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근로자의 24%, 은퇴자의 17%는 5년 전 대비 현재 부채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 부채 부담 증가는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한 자신감을 낮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와 반대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며, 높은 교육 정도와 건강 상태를 보유할수록 은퇴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정규직 기혼 근로자들에게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편안한 노후를 위해 현재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저축 비중은 가계 소득의 20%~29%가 적정하다는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한 자신감



부채 부담 정도에 따른 퇴직에 대한 자신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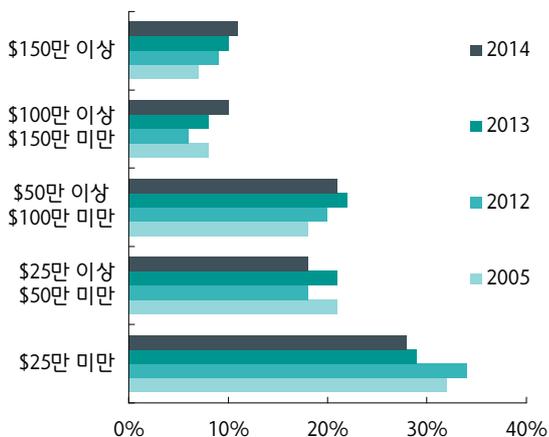


주 : 은퇴계획이 있음은 IRA, DC plan, DB plan 중 최소 1개 이상 보유함을 의미 | 자료 : EBRI

의견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0%~14%라고 응답한 비중이 1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소 공격적으로 높은 저축 비중을 목표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편안한 노후를 위해 은퇴시점에 필요한 자산이 25만 달러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는 과거 2005년 필요 자산이 25만 달러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4%이었던 것과 대비 약 6%p 증가한 수치로 목표 저축금액은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BRI는 실제로 근로자가 은퇴자금을 계산해 보았는지 여부가 퇴직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의 44%만이 퇴직 후 필요한 소득을 계산하여 잠정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9%가 은퇴 자금으로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계산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15%만이 100만 달러라고 응답하여 노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은퇴시점에 필요한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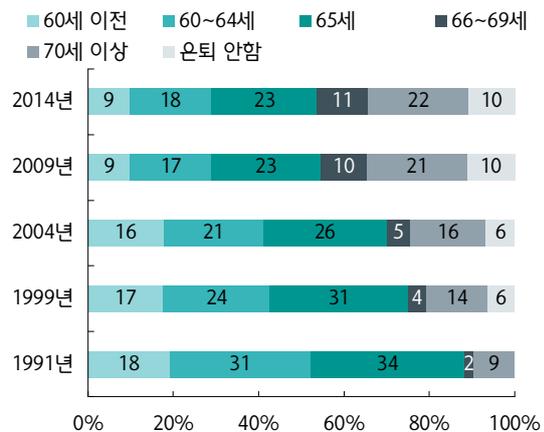


자료 : EBRI

한편 퇴직연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가 충분치 못한 경제상황 등으로 향후 퇴직연령을 연기시키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 기대 은퇴 연령이 늦춰져 65세 이후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중이 1991년에는 11% 이었으나 2014년에는 33%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자 및 퇴직자들의 경우 퇴직연금 등 은퇴 설계가 되어 있고, 부채 부담이 낮을수록 그리고 퇴직 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는 등 노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수록 퇴직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은퇴 설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막연하게 은퇴 희망 연령을 늦추기 보다는 향후 노후를 준비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은퇴설계를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 “The 2014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 EBRI, 2014.3)

근로자의 은퇴 희망 연령



자료 : EBRI



###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수준과  
가입자의 부담능력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한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분위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현황을 파악하여 소득재분배 효과측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건강보험 제도의 장점을 부각시키고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에는 보험료수준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 분포, 보험료 수준별 성·연령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 등이 포함되었다.

우선 전체 보험료에 따른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

여비는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은 1.1배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직장 가입자를 나누어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가 각각 2.47배, 2.55배로 가장 높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04만원, 직장은 102만원으로 지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가입자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계층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상위 20% 계층은 전체진료비 중 약 20%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하였고, 하위 20% 계층은 일반병원 진료비 점유율(24.1%)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은 수입, 지출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이용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분석 결과,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수준이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2014.5)

### 연도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 급여비

(단위 : 원, 배)

구분	전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월보험료(A)	62,296	77,112	76,637	83,788	88,586	92,506
	월급여비(B)	114,911	129,402	143,216	150,780	149,896	159,345
	비율(B/A)	1.66	1.68	1.87	1.80	1.69	1.72
보험료 하위 20% 계층	월보험료(A)	17,458	19,101	18,623	20,485	21,700	22,797
	월급여비(B)	72,213	86,422	99,794	107,824	110,135	117,020
	비율(B/A)	4.14	4.52	5.36	5.26	5.08	5.13
보험료 상위 20% 계층	월보험료(A)	158,397	178,579	176,707	194,466	206,024	215,086
	월급여비(B)	174,065	194,432	212,615	223,595	222,086	238,516
	비율(B/A)	1.10	1.09	1.20	1.15	1.05	1.11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은 노동시장과 연계해  
근로유인 높일 필요**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초기이므로  
향후 개선 노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행될 필요”**

한국연금학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효과 추정과 창조경제시대에 고령고용창출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연금 제도와 고령 고용창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연금제도 내에서도 조기퇴직 방지를 통한 가입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중 조기 및 재직자노령연금 개정과 연기연금 도입 등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민연금제도내 근로유인적 요소가 들어있는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효과를 살펴보고, 국민연금이 근로

능력 개발 기능을 할 필요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은퇴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금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는 것이 근로활동에는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연금급여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때 나타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제도 초기시점에서 수급자가 많지 않고 수급액도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산업과 직업의 특성에 따라 연금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정 직업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이 충분치 못한 사람이 조기은퇴를 결정하였으나 연금수급권이 없는 경우 노후빈곤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집단에 대한 노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위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제도의 초기 현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향후 개선노력은 성숙기를 가정한 장기적 관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노동시장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효과 추정과 창조경제시대에 고령고용창출 활용 방안”, 한국연금학회 2014 춘계 학술대회, 2014.5)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효과 분석**

		은퇴 확률(유인)	근로 유인
국민연금	수급	↑	↓
연금소득	高	↑	-
	低	-	↑
직업유형	임금근로자	크다 (비임금근로자 대비)	-
종사상 지위	상용직	크다 (임시, 일용직 대비)	-

| 1) 강성호, 김기홍, "국민연금의 근로유인 효과 추정과 창조경제시대에 고령고용창출 활용 방안", 2014 | 자료 : 한국연금학회 발표자료 정리

## 은퇴설계 서비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 안정적인 은퇴생활 영위를 위한 자금계획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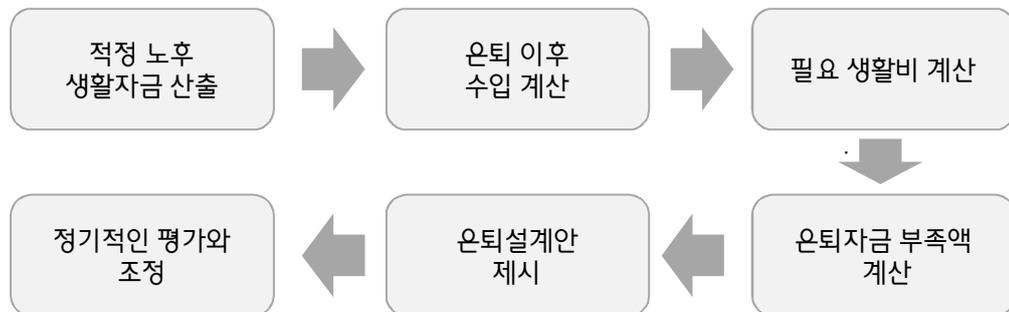
은퇴설계(Retirement Planning)란 개인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때와 같은 동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기간 중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을 산출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미리 준비함으로써 가능한 은퇴 전에 필요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은퇴설계서비스는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 이러한 은퇴설계를 수행하기 어려운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적정노후 자금을 산출한다. 적정 노후 자금은 음식, 주거, 부채원리금 상환 등의 필수 항목과 의복, 차량유지, 일상적 의료비 등의 중요 항목, 그리고 여행 및 여가, 취미활동 등의 선택적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은퇴 이후 수입을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 재원은 국민연금, 퇴직금 및 개인연금 등의 확정 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 소득은 다시 현금, 예금, 보험 등의 고정 소득과 펀드, 주식, 부동산 등의 변동성 있는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필요 생활자금과 은퇴 이후 수입간의 부족자금을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자금 규모에 따라 현재 연령에서 필요한 저축 금액이 도출되며 예상 은퇴 시기, 기대 수명, 현재 자산 보유 현황 등을 토대로 노후 생활 필요자금과 준비 가능한 자금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은퇴설계서비스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폭 넓게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로서 금융기관은 물론 정부부처나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은퇴설계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은퇴 후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는 은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 다투어 다양한 은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매우 드문 편이며 심지어 대다수의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은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은퇴설계가 노후준비의 첫걸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은퇴설계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 은퇴설계 프로세스



행복디자인  
평생을 위한 행복디자인

하나금융그룹



힘이된다. 하나은행!

**100세 시대 행복을 디자인하세요**  
 필요은퇴자금 진단부터 안정적인 자금운용까지  
 맞춤형 은퇴설계로 당신의 노후가 중요워집니다

※본문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또는 상담실과 문의해 주세요.

하나은행

## 은퇴한 5060세대, 이젠 ‘알바’ 세대로!

### ‘알바’로 제 2의 인생을 사는 5060세대, 2030 알바 추월

인구 고령화와 조기 퇴직에 따른 5060세대가 이젠 치열한 '알바' 구직에 뛰어들고 있다. 2030세대가 주를 이뤘던 아르바이트 시장에 중·장년층이 몰리고 있다. 점점 짧아지는 정년 탓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는 쉽지 않고,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알바' 시장에 몰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장년층은 구직이 보다 쉬운 분야인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 등에 진출하며, 2030세대가 가득했던 그곳에서 이제 서비스정신이 가득한 5060세대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5060세대 알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구인 업체가 젊은 층보다는 5060세대를 더 선호하는데 있다. 그 이유는 '빠른 업무 습득', '성실함' 그리고 '낮은 이직률'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알바생"인 중·장년층에게 매니저 등의 직책을 부여하여 운영에 도움을 받는 사장님들도 있다. 퇴직 후 불안했던 이들은 카페 매니저, 영화관 도움지기 등으로 '제 2의 인생'을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활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 5060세대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이다. 최저임금이 2014년 5,210원으로 2013년 대비 7.2% 인상되었다.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40만원까지 수입은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아르바이트 시장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다. 고된 일자리의 경우는 더 높은 시급(7,000~10,000원 이상)이 적용되는데, 이를 자녀의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쓰는 중·장년층도 증가하고 있다.

### C 그룹의 중·장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

C 그룹은 고졸, 여성, 그리고 은퇴한 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 중이다.

특히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니어 리턴십(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취업을 희망하는 5060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

#### 1. C 그룹 택배전문회사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 노인인력교육센터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택배차량이 아파트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등 거점까지 다량의 물품을 실어 나르면, 시니어 인력은 그 거점에서부터 자전거와 스마트카드로 수신인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본 시스템으로 인해 인력 부족의 어려움과 택배차량 진입 통제 등의 불편함이 해소된다는 회사측의 입장이다.

#### 2. C 그룹 영화관 '도움지기'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C그룹 영화관 도움지기는 영화 상영 준비, 매점 제품 준비, 현장 청결 관리 등의 극장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니어 인력이다. 2012년 10월부터 채용하였으며, 현재 전국 지점으로 채용을 확대 중이다.

#### 3. C 그룹 외식사업 상생 아카데미

C 그룹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은퇴자 창업 지원을 위한 '상생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교육을 통해 외식사업 노하우를 중·장년층(은퇴자)에게 전수한다. 본 교육은 7주 과정으로, 경력 진단, 멘토링, 창업 역량 교육, 맞춤형 실습 등을 제공한다.

### 중·장년층의 아르바이트 구인정보는 채용관 사이트로 쉽게 접근 가능

노후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세대는 은퇴 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이어가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기엔 다소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5060세대들은 보수는 적지만 손쉽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중이다. 다양한 구인 사이트 또한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하여 '중·장년층 전문 채용' 코너를 운영 중에 있다.

#### 1.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

정부가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취업 포털 사이트로써, 중·장년층(은퇴자)을 대상으로 상담, 적성 검사, 교육 및 채용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2. 파인드잡([www.findjob.co.kr](http://www.findjob.co.kr))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제 일자리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워크넷과 함께 채용정보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워크넷의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중장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코너를 이용하여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3. 그 외 다양한 구직 사이트

- 알바천국([www.alba.co.kr](http://www.alba.co.kr)) 중장년 채용관
- 베틀시장([job.findall.co.kr](http://job.findall.co.kr)) 중장년 구인정보
-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www.4060job.or.kr](http://www.4060job.or.kr))

###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편하게 접근

전 연령층으로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고 있음에 따라 많은 중·장년층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 중에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간, 공간에 제약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 1. 알\*천국 - 중장년알바

다양한 아르바이트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알\*천국은 40세 이상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특화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중장년알바'를 출시했다. 최근 50대 회원 가입 수가 증가하는 등 중·장년층의 구직 증가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본 어플리케이션은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카테고리 12가지를 엄선한 '맞춤형'으로 개발되었다. 모바일업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간소화 하고, GPS 기능을 통한 주변 알바 정보 등 필요한 기능들로 구성하여 개발했으며, 글자 크기 조정 등 편의를 더했다.

또한 읍/면/동 단위까지 가능한 주소 검색으로 원하는 지역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전화 걸기 기능으로 실시간 문의와 지원도 가능하다. 그리고 알\*천국 사이트에 등록된 이력서만 있으면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지원"이 가능하고, 최근 3개월 이내의 지원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 2. 기타 중·장년 채용 전문 어플리케이션

- 파인드잡 중장년 시간제 일자리 채용관 : 전경련 추천 코너 및 스크랩을 통한 채용정보 보관 기능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 중장년 취업 4060JOB
  - 베틀시장 구인구직 - 중장년일자리
-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

### 하나은행, 하나N Bank 사용자를 위한 이벤트 실시

하나은행은 6월 연휴와 휴가 시즌을 맞이하여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하나N Bank'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중 '하나N Bank' 기존 이용고객 및 신규가입 고객 모두에게 '몽키3뮤직' 평생 50% 할인 혜택과 롯데 인터넷 면세점 1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 PIB복합점포 하나 GOLD CLUB 압구정 개점

PIB 복합금융점포 1호로 하나 GOLD CLUB 압구정 센터가 지난 6월 3일 개점했다. 본 센터는 강남을 대표하는 최고의 PB센터로 앞으로 거액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PB업무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B 업무를 결합해 개인과 기업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PIB 전략으로 개인 및 기업 영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외환은행, 화폐전시관(Gallery of Money) 개관

외환은행은 지난 14일 명동 본점 지하 1층 위변조대응센터 내에 각 국 통화의 화폐실물 및 희귀 화폐를 전시하는 화폐전시관을 개관했다. 본 전시관에는 외환은행에서 환전 가능한 세계 45개국 통화 실물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원화의 디자인 변경시 제작된 초판 인쇄본, 동일 일련번호를 가진 희귀한 화폐 등이 전시된다.



### 하나생명, 하나은행 퇴직자 대상 영업채널 설명회

하나생명은 5월 15일 하나은행 퇴직자를 대상으로 HIP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JT와의 만남(하나와 함께 두 번째 출근)' 행사를 진행했다. HIP(Hana Insurance Plaza)는 2012년 오픈한 개인대리점 영업채널로 하나 금융그룹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개인 보험 대리점 사업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채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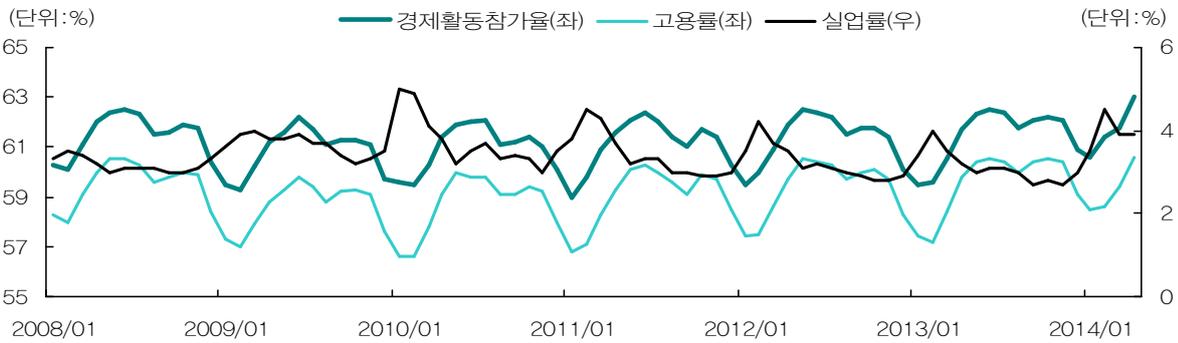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	61.5	7.7	61.6	75.4	80.0	74.5	39.1	59.5	6.9	56.8	73.2	78.4	73.1	38.3
2014.1~4	61.7	8.9	63.0	75.7	80.7	75.1	37.7	59.3	7.8	56.8	73.2	78.8	73.4	36.3
2014.3	61.8	7.6	62.3	75.6	80.9	75.5	38.7	59.4	7.0	56.0	73.0	78.9	73.6	37.5
2014.4	63.0	7.5	63.5	76.5	81.5	76.7	41.2	60.6	6.9	57.0	73.7	79.4	74.9	40.3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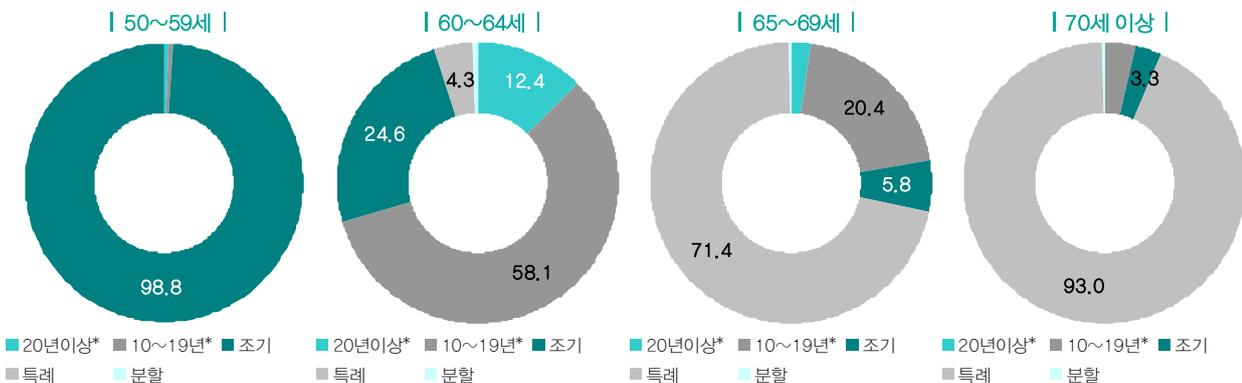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	20,744,780	1,290,557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363	177,569	117,018
2014.3	20,833,091	1,313,985	11,976,714	8,540,177	1,971,561	6,568,616	183,936	132,264

2. 2014년 2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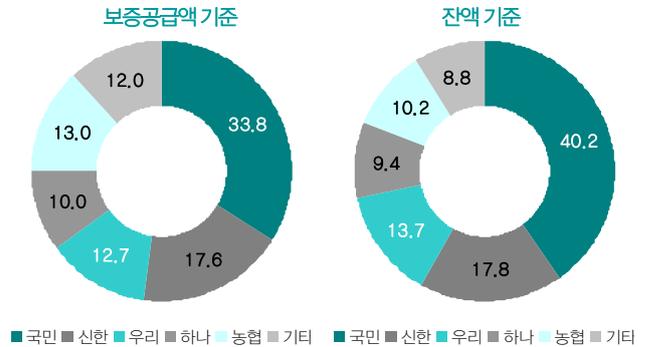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	1,124	17,474
2010	2,016	30,361
2011	2,936	41,000
2012	5,013	69,006
2013	5,296	62,950
2014.3	458	4,615
2014.4	545	5,835



2. 2014년 4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973	94,385
신한은행	1,075	41,662
우리은행	743	32,119
하나은행	585	21,945
농협	761	23,899
기타	698	20,553
합계	5,835	234,563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1. 2014년 3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045,285	5,508,876	1,452,726	83,683	1,355,843	90,637	118,613	46,987
생명보험	3,091,707	2,893,420	194,761	3,526	220,423	179,362	18,267	1,823
손해보험	1,099,107	1,036,726	62,125	256	59,326	57,175	19,217	225
증권	2,647,655	2,511,271	136,013	371	120,036	57,725	6,488	205
근로공단	113,569	-	113,155	414	29,125	-	28,913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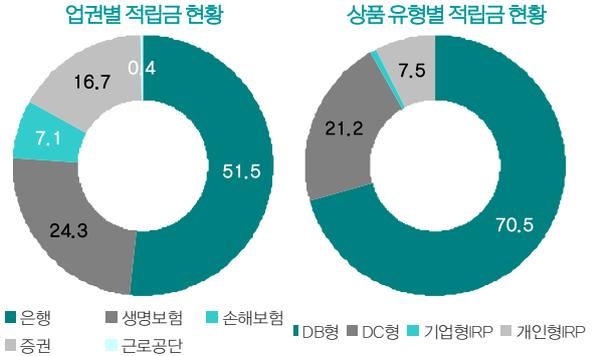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6	226,994	73,301	32.3	5,300	2.3	117,808	51.9	30,585	13.5
2013.9	235,716	74,543	31.6	5,549	2.4	123,650	52.5	31,974	13.6
2013.12	254,138	80,107	31.5	6,812	2.7	131,741	51.8	35,478	14.0
2014.3	259,986	80,746	31.1	6,868	2.6	136,963	52.7	35,409	13.6

### 3. 2014년 3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계	852,837	600,856	180,893	6,895	64,193
은행	439,530	269,600	119,145	6,641	44,144
생명보험	206,816	173,418	24,196	200	9,002
손해보험	60,898	51,851	6,902	12	2,133
증권	142,161	105,987	27,256	25	8,894
근로공단	3,431	-	3,394	17	20



### 4. 2014년 3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억원, %)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예적금	286,415	47.6	111,603	61.7	6,036	87.5	39,037	60.8	443,990	51.9	
	금리확정형보험	224,504	37.4	20,040	11.1	143	2.1	7,981	12.4	252,667	29.6	
	금리연동형보험	18,916	3.1	5,657	3.1	62	0.9	1,824	2.8	26,459	3.1	
	국채	516	0.1	1,083	0.6	0	0.0	1,600	2.5	3,199	0.4	
	통안증권	-	-	-	-	-	-	-	-	-	-	
	기타정부보증채	-	-	-	-	-	-	-	-	-	-	
	원리금보장ELS	47,760	7.9	2,025	1.1	0	0.0	1,886	2.9	51,671	6.1	
	RP	9,313	1.5	2,354	1.3	2	0.0	983	1.5	12,653	1.5	
	발행 및 표지어음	-	-	153	0.1	-	-	48	0.1	202	0.0	
	기타	-	-	1	0.0	-	-	7	0.0	8	0.0	
원리보장금 소계	587,323	97.7	142,916	79.0	6,243	90.5	53,367	83.1	789,849	92.6		
실적배당형	실적배당형 보험	170	0.0	1,554	0.9	11	0.2	351	0.5	2,085	0.2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1,043	0.2	114	0.1	1	0.0	64	0.1	1,222	0.1
		혼합형	1,148	0.2	9,158	5.1	15	0.2	1,439	2.2	11,759	1.4
		채권형	4,166	0.7	24,391	13.5	597	8.7	3,544	5.5	32,698	3.8
		재간접	136	0.0	191	0.1	0	0.0	19	0.0	346	0.0
		부동산/실물/특별	-	-	-	-	-	-	-	-	-	-
		기타	1,437	0.2	0	0.0	-	-	-	-	1,438	0.2
	집합투자증권 소계	8,100	1.3	35,407	19.6	623	9.0	5,417	8.4	49,547	5.8	
직접투자	477	0.1	98	0.1	-	-	300	0.5	875	0.1		
실적배당 소계	8,577	1.4	35,505	19.6	623	9.0	5,717	8.9	50,422	5.9		
대기성 자금	4,956	0.8	2,473	1.4	29	0.4	5,108	8.0	12,566	1.5		
총계	600,856	100.0	180,898	100.0	6,895	100.0	64,193	100.0	852,837	100.0		

### 5. 2014년 3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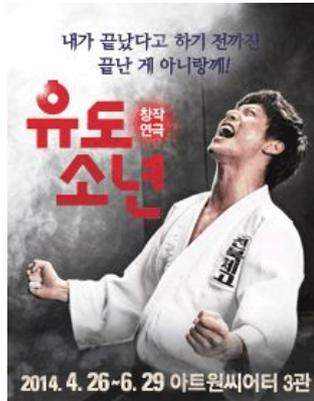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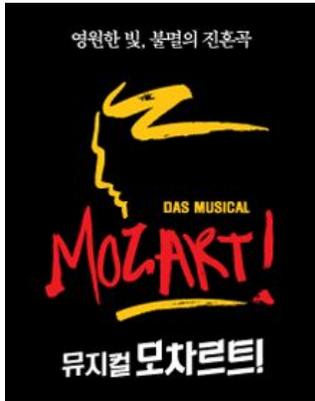
(억원, %)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412,164	93.8	196,320	94.9	59,369	97.5	118,637	83.5	3,360	97.9
실적배당형	19,680	4.5	9,196	4.4	1,518	2.5	20,001	14.1	28	0.8
기타	7,687	1.7	1,300	0.6	11	0.0	3,5244	2.5	43	1.3
합계	439,530	100.0	206,816	100.0	60,898	100.0	142,161	100.0	3,431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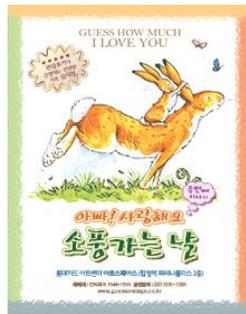
하나은행 고객님께만 드리는 특전! 하나컬처클럽의 공연 할인 혜택을 지금 누리보세요.

뮤지컬, 연극



<b>기간</b>	2014.06.11 ~ 2014.08.03	2014.04.22 ~ 오픈런	2014.04.26 ~ 2014.06.29	2014.05.02 ~ 2014.08.31
<b>장소</b>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	AN아트홀.대학로
<b>할인</b>	VIP 25% / R 30% 할인	R/S 50% 할인	57% 할인	최대 66% 할인
<b>기본가</b>	VIP:130,000원 → 97,500원 R : 110,000원 → 77,000원	R : 66,000원 → 33,000원 S : 44,000원 → 22,000원	일반석: 35,000원 → 15,000원	평일 : 30,000원 → 10,000원 주말 : 30,000원 → 15,000원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연



<b>기간</b>	2014.06.17 ~ 2014.07.26	2014.03.15 ~ 오픈런	2014.05.13 ~ 2014.06.29
<b>장소</b>	CTS아트홀	롯데카드 아트센터 아트스페이스	예술나무씨어터
<b>할인</b>	40% 할인	60% 할인	최대 50% 할인
<b>기본가</b>	전석: 30,000원 → 18,000원	R석: 38,000원 → 15,200원 S석: 33,000원 → 13,200원	평일: 20,000원 → 10,000원 주말, 공휴일 : 20,000원 → 11,000원

사이트 주소 : 인터넷에서 하나컬처클럽(<http://culture.hanabank.com>)으로 검색하세요.

- 이용 방법 : 인터넷뱅킹 로그인 > 하나컬처클럽 이용동의(최초1회) > 사이트로 이동

www.hanaif.re.kr

